| 현불 논단 |

수요 차단, 디지털 성범죄 해법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장

'디지털 성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온라인서 시공 초월해 자유 유통
피해자에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여성 대상으로 한 복수 의미하는
'리벤지 포르노' 여성 혐오 용어
가해자 책임 두는 용어 사용해야

문제는 IT기술 아닌 사람에 있어
생산 · 공급뿐 아닌 수요 차단해야
불법영상 클릭하며 해결 요원해

디지털 성범죄는 비교적 전통 범죄화됐다고 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 음란 영상물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아우르는 범죄이다. 바로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숨어있다.

온라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유통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신도 모르게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한 것이어서 피해 정도나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전통적 성범죄가 영혼의 살인이라고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적어도 그 피해자에게는 어쩌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같은 형벌이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쉽게 말하자면 불법으로 생산된 영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노출되고, 유포된 불법 영상물은 온라인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는 지속되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던 몰래 카메라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에는 특정인을 상대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되고 있다. 당연히 잘못된 용어이지만 바로 소위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이다.

그런데 '리벤지 포르노'는 '리벤지'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에 대한 복수를 뜻하며, 따라서 피해자 절대 다수인 여성의 잘못에 대한 복수를 함축하고 있어 매우 여성 혐오적인 용어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는 '리벤지 포르노'가 아니라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성범죄로 이름함이 마땅하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몰래 카메라'라는 용어 대신에 '불법촬영'이라고 표현하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는 움직임도 바람직한 것이다.

비단, 디지털 성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쩔 수 없이 신종범죄를 유발하게 되고, 기존의 전통적 범죄마저도 첨단과학기술을 만나 응용범죄로 진화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전에도 지구촌 어디에나 소위 음란물 또는 포르노라는 불법 영상물은 있었으며, 전통적 성범죄가 디지털 기기를 만나서 새로운 하나의 '적응범죄(Adaptive Crime)'로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파생시킨 것이다. 결국,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범죄라기보다는 그 수법이 첨단으로 진화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 알려지고 있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점,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잇다는 점, 그 피해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속화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은 더 많은 범행의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고 더 쉽게 범행할 수 있는 수법을 제공하고 있음에 비해 그 통제는 법률적, 기술적 복잡성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IT기술에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도 불법영상물을 생산, 유포하는 공급의 차단도 좋지만 사실은 그러한 불법 영상물의 소비를 차단하는 것이 답이다.

과거 마약과의 전쟁이 공급 차단이었지만 실패한 전쟁이 되고 이제야 수요의 차단으로 전술을 바꾼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해결도 공급이 아닌 수요의 차단서 찾아야 한다. 클릭 한번으로 누군가의 삶이 망가짐에도 지금도 불법영상을 클릭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해결될 수 없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신뢰 깨진 포교전선, 제도 점검 필요

조계종 포교원과 포교단체, 신도단체들이 구축한 포교전선에 금이 가고 있다. 신뢰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부설 사단법인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

그동안 불교계 많은 단체들은 대외적인 창구로 부설 사단법인을 만들어 활용해왔다. 조계종 포교단체를 보면 불교여성개발원은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을, 불교상담개발원은 자비의전화를, 포교사단은 좋은인연을, 국제포교사회는 문화나눔을 운영하고 있다. 신도단체 대표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날마다좋은날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사단법인을 부설하는 것은 명확하다. 대외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종단과 포교, 신도단체, 그리고 부설 사단법인이 원만한 관계일 때는 발생하지 않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부설 사단법인 이사장 만의 취임을 강행한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관상 여성개발원장과 부설사단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겸직 조항이 없다. 여성개발원의 지도감독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수장 체제 하에서 사단법인의 독립까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정부 위탁 사업 외에도 기부, 후원의 영수처리 등을 위해 사단법인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제도상 연결고리 부재는 큰 타격이다. 사단법인 독립시 기본자산이 사라진 불교계 단체들의 존폐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도 특별지도점검에서 불교여성광장 기금 7억 5000만원을 포함해 교육관 임차대금 등 총 13억 5000만원이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의 계좌에 있으며, 정작 불교여성개발원 계좌에는 4~5000여 만원 밖에 없는 현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다른 불교 포교신도단체들은 정관상 연관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개발원 정관에 대표 겸직을 명시해놨으며, 포교사단 또한 회칙에 좋은인연 대표 겸직을 명시해놨다. 국제포교사회는 특이하게 국제포교사회와 문화나눔 정관에 모두 겸직을 명시 해놨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날마다좋은날과 겸직 조항 등이 없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따라 만들어지고 있는 포교신도단체들의 부설 사단법인은 모기관보다 더욱 큰 확장성을 지닌다. 인큐베이팅 기간이 끝나면 부설 사단법인은 독립성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과 포교, 신도단체들이 부설 사단법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인큐베이팅 기간 동안의 종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포교신도단체 예산 규모에서 각 단체별 3~4000만원에 불과한 종단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체들의 입장이다. 포교원뿐만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포교신도단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단체와 상위기관의 꼼꼼한 지도점검과 계도가 필요하다. 조계종 포교원의 경우 단체들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재정적 현황 등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정관 미비 등 맹점은 미리 점검 · 정비해 놓아야 한다. 법과 제도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만들어 놓는 규칙이다. 탄탄한 관계 형성 위에 다시금 포교전선에 신뢰의 싹이 움트길 기대한다.

社 說

교과서는 청소년 향한 '대기설법'

오래 전부터 젊은 세대가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우스갯소리로 불교를 '어른들의 종교' 혹은 '할머니의 종교' 등으로 표현하곤 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김영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중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불교서술을 짚어보는 세미나에서 일선 교사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 또한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불교는 선생님도 어렵다"고 호소할 정도이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솔직히 불교계는 이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한 적이 없다. 의례의 한글화만 봐도 그 해석을 두고 의견이 아직도 분분하다. 한글반야심경의 '온갖 고통에서 건지느니라'는 '건너느니라'로 바뀌었고, 지금은 이 표현마저도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과서에 기술된 불교서술까지 한글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교과서에 담긴 불교용어를 자세하게 풀어쓰기에는 지면의 한계가 분명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교사들의 이해를 돕는 참고자료를 제작하는 일이다. 이미 교과서에 담긴 불교용어가 몇 가지인지는 연구가 끝난 상황. 불교계는 전문연구자들을 섭외해 가르치기 쉬운 용어해설집을 만들어야 한다.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항상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진리를 설했다. 대기설법이다.

청소년을 위한 불교의 대기설법은 교과서다. 미래세대 포교에 어려움을 겪는 불교계가 교과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불광연구원 해산 결정에 부쳐

최근 불광사가 산하 불광연구원의 해산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불광연구원은 광덕 스님의 전법포교에 대한 유지를 이어 그동안 불교계가 하지 못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미래, 초중고역사교과서의 불교서술체제 등에 관한 연찬회는 불교 안팎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회 흐름을 진단하고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단체가 하나 둘씩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해왔다.

불광연구원을 운영하는 불광사는 현재 불광사 사태 이후 불사 등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로 인해 산하기관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산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불광연구원은 불광사 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불교계에 후원 모집이나 조직 이관 등을 타진하는 등의 노력은 기울였어야 했다. 재정상 어려움으로 연구원 운영이 어렵다면 내부 구성원들에게 임금 삭감과 후원 모집 혹은 외부 재정지원 등을 통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은가.

불광연구원 뿐만 아니라 불광사 산하기관에서 전임교원 해촉 등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불광사 사태 후 전 회주 스님의 치적 지우기가 아니냐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대의 원력을 이어 받아 수년동안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기관은 그 나름대로의 존립 가치가 있다. 진정으로 운영에 대한 원력, 선대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먼저 대중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 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卍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